

‘盧風’ 진원지서 이해찬 대세론 ‘흔들’

■ 민주 광주·전남 경선 ‘담합’ 반발 지지표 이탈 시민·당원 투표가 좌우



투표 행렬 민주통합당의 차기 대표 선출을 위해 22일 화순군 하나움체육관에서 열린 순회투표에서 광주·전남지역 대의원들이 길게 줄지어 투표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6·9 전당대회 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광주·전남지역 대의원 순회 경선 결과, 경선전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전 속으로 빠져드는 양상이다.

22일까지 사흘간 진행된 대의원 경선 결과, 울산에서는 김한길 후보, 부산에서는 이해찬 후보, 광주·전남에서는 강기정 의원이 각각 1위를 차지했다. 진노(진노무현) 세력이 완전 당을 장악한 부산 경선을 제외하고는 이번이 일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초반 판세는 이해찬·김한길 후보의 양강 구도에 강기정, 추미애, 이상호 후보가 추격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광주·전남 경선 의미=이날 진행된 광주·전남 대의원 경선에서는 988명이 투표에 참석(1인 2표)한 가운데 강기정 후보가 488표, 김한길 후보가 437표, 이해찬 후보가 371표를 얻어 1~3위를 각각 차지했다.

애초, 이해찬·김한길 후보의 1위 다름으로 벌어질 것이라 관측과는 달

리 유일한 호남후보인 강 후보가 1위를 차지한 것은 같은 지역의 당선자와 지역위원장이 표를 결집해준 결과로 풀이된다.

민주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광주·전남지역 지역위원장이 소속 지역의 대의원에 대해 이해찬·김한길·강기정·추미애 후보를 중심으로 표를 배분한 결과, 강기정 후보의 표는 오더(지시)대로 이어졌지만 이해찬 후보의 표는 상당수가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울산 경선에서 ‘이해찬 대세론’이

상처를 입자 광주·전남지역의 지역 위원장들이 대의원을 통해 표를 몇몇 유력 후보에게 나눠줬으며 그 중 상당수 대의원은 전략적 선택을 했다는 것이다. 즉, ‘이해찬-박지원 담합’에 대한 반발과 우려로 이해찬 지지표가 대거 이탈한 것이다.

민주당 전남도당 관계자는 “대의원 표가 한 후보에게 집중이 되지 않겠다는 것은 확실한 당 대표감을 찾지 못한 광주·전남 대의원의 표가 분산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향후 전망=이 같은 결과에도 불

구, 전체적 득표 수는 이해찬 후보가 이날 현재까지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후보는 세 지역구 경선 합계에서 772표로 1위를 기록하고 있고, 김한길 후보가 744표로 그 뒤를 쫓고 있다. 울산 경선 4위, 광주·전남 경선 3위로 대세론이 꺾였음에도, 부산 경선의 압승으로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향후 지역 순회 경선은 이해찬·김한길 후보의 양강 구도 속에 계속 혼전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충청권과 친노 세력이 강한 지역에서는 이해찬 후보가 우세를 보이

겠지만 나머지 지역에서는 김한길 후보가 앞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 순회 대의원 투표에서는 당 대표 윤곽을 내지 못하고 결국, 70%가 반영되는 시민·당원 투표 결과가 최종적으로 당 대표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당원 투표는 다음달 5~6일 모바일 투표, 8일 현장 투표로 각각 실시되며 결과는 9일 전당대회에서 발표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강운태·박준영 민주당에 ‘일침’

“외부사람 쳐다보지 말고 단결” “당은 당원 중심으로 운영하라”

강운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총선 패배 이후 ‘진노’대 ‘비노’로 나뉘어 갈등을 빚고 있는 민주통합당에 작심을 하고 ‘일침’을 가했다.

22일 화순 하나움 문화스포츠센터에서 열린 민주통합당 당 대표·최고위원 선출대회에 참석한 강 시장과 박 지사는 각각 인사말을 통해 민주통합당의 자성과 반성을 촉구했다.

강 시장은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볼 때 지난 두 차례 정권을 창출했을 때 보다 훨씬 더 좋은 기회가 왔다”며 “민주당이 집권을 위해서는 갈등과 분열의 씨앗을 없애고 대동단결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특히 “현재 민주당 대선 후보들 중 누가 대통령이 돼도 지금 이명박 대통령보다 열배 백배 더 잘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외부에 있는 신기루와 같은 사람만 자꾸 쳐다보지 말고 우리 내부사람을 존중하고 그런 다음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문재인 당선자가 제시했던 안철수 교수와의 ‘공동정부’ 등에 대한 논란과 민주당 내부에서 안 교수를 의식하고 있는 점을 우회적으로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준영 전남지사도 이날 그동안의 민주당 지도부를 꼬집고, 당 대표 후보들에게 당원 중심의 당 운영을 주문했다.

박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민주당이 지향해야 하는 가치를 당원들에게 제시해 정당한 경쟁과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지도부는 수십 년 동안 담비를 내고, 민주당 때문에 고난을 당한 당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의사를 결정했다”고 비난한 뒤 “차기 지도부는 당원을 중심으로 당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변화·쇄신으로 정권교체 선봉 될 것”

장명완 신임 민주 광주시당위원장



신임 민주통합당 광주시당위원장으로 선출된 장명완(광주 남구) 의원은 22일 “소통과 화합을 통해 광주시당을 변화와 쇄신의 중심으로 만들어 오는 12월 대선에서 정권교체의 선봉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임 장 위원장은 “지난 4·11 총선을 통해 민주당이 시민·국민으로부터 신뢰받기 위해서는 낮고 겸손한 자세로 시민을 섬겨야 한다는 점을 배웠다”며 “광주시당부터 시민들을 위해 희생·헌신하는 자세로 임

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당원들의 소통과 화합을 주문했다.

그는 “당원 전체가 책임감을 갖고 시장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소통구조를 개선해 활력이 넘치는 광주시당을 만들 것”이라며 “특히 각 지역위원회를 비롯한 시장 모두가 작은 이해관계나 정파, 출신을 뛰어넘어 화합과 결속을 통

해 힘 있는 시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이어 “지역 현안 해결 및 지역발전을 위한 시민사회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정책 등에도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신임 장 위원장은 이날 화순 하나움체육관에서 열린 민주통합당 광주시당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만장일치로 시당위원장에 추대됐다.

광주제일고교와 서울대를 졸업한 장 위원장은 ▲기획예산처 장관 ▲호남대 총장 ▲제18대 국회의원 등을 지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당원·현장·소통 중심 도당 이끌겠다”

우윤근 신임 민주 전남도당위원장



22일 민주통합당 전남도당위원장으로 선출된 우윤근(광양·구례)의원은 “‘당원 중심’ ‘현장 중심’ ‘소통 중심’으로 전남도당을 이끌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신임 우윤근 민주통합당 전남도당 위원장은 “연말 대선을 앞두고 정권 탈환의 전진기지 역할을 해야 할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만, 대선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남도당 운영의 3대 원칙으로 ▲당원 중심 ▲현장 중심 ▲소통 중심을 제시한다”면서 “민생을 최우선으로 살피는 짧은 도당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임 우 위원장은 이날 화순 하나움 문화스포츠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전남도당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도당 위원장으로 추대됐다. 3선의 우 위원장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법제사법위원장 등 굵직한 요직을 거쳤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그는 이어 “저를 신임해 준 민주당 원과 대의원, 큰 성원을 보내준 전남도민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임 우 위원장은 이날 화순 하나움 문화스포츠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전남도당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도당 위원장으로 추대됐다. 3선의 우 위원장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법제사법위원장 등 굵직한 요직을 거쳤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이해찬, 인신공격 사죄하라”

김한길 측

민주통합당 6·9 전당대회에 출마한 김한길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22일 낸 자료에서 “이해찬 후보가 전남 부산 합동토론회에서 김 후보에게 인신공격에 가까운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정중한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은 이날 논평에서 “오직 상대 후보에 대한 흠집내기로, 비판으로만 선거캠페인을 했던 문제에 대해 결회하게 돌아보길 바란다”며 “아름다운 경선은 자기성찰로부터 시작된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전남 부산 합동토론회에서 김 후보에 대해 “2007년 2월 ‘노무현 시대는 이제 끝났다’면서 맨 먼저 23명을 데리고 열린우리당을 탈당했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빛의만평

- 김종두



진짜 이견 아니다

깨끗한 대한민국 정치!

불법선거비용 신고에서 시작됩니다!



신고자 신분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신고자 최고5억원 포상금 지급

- 불법 정치자금을 주거나 받는 사례
- 후보자 공천과 관련하여 돈을 주거나 받는 사례
- 자원봉사자 등에게 선거운동대가를 주거나 받는 사례
- 선거와 관련있는 돈이나 물품·식사 등을 제공하거나 받는 사례
- 선거비용 수입·지출내역을 허위·축소·과장·누락 신고한 행위
- 불법 선거운동사무소를 설치·운영한 사례 등



신고전화 1390

(정당·후보자의 선거비용 수입·지출내역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이나 인터넷홈페이지 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후보자 선거비용 열람·사본교부기간 : 2012.5.18.~8.20.

중앙선거관리위원회